

한강을 통해 연세한강연대를 뜨겁게

'건강한 삶으로 건강한 나라를 위하여'를 슬로건으로 하는 연세한강연대는 대부분이 개신교회는 건강문제에 특별한 관심과 방향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개신교의 태도로 되어 있을 경우 대다수 일반인들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 책은 1992년 브라질 리우에서 개최된 지구환경회의에서 채택된 지구를 살리기 위한 21세기 행동강령인 <의제 21>의 제6장에 환경회의라는 인간건강 이념으로 추진하는 것을 소개하고 있다.

이 책으로 인해 우리가 다루려고 하는 한강건강문제를 좀더 구체화한 2000년경에 가서 한강오염에서 비롯되는 건강위험을 좀더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있으며 특히 한강건강의 취약계층인 어린이, 여성,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에 관심을 갖고 있다.

이러한 관심은 1995년 12월의 북경연세대회와 2002년 12월의 몬트리올에서 개최된 세계환경회의에서 더욱더 강조되고 있는 주요 주제이다. 40년에 이르는 의제 21의 이행이 전반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남부 지방에 살고 있는 한강오염으로 인한 인간환경건강 문제 해결의 이행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살펴본다.

비록 나라들마다 해결책이 다르지만 이념적인 대립을 넘어 한강건강 관련 정책이나 연구나 사업을 인본의 기준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여성의 몫이 갖는 특수성이나 사회문화적 취약성을 반영하기 못하고 있는 것이 문제이다. 즉 한강 건강문제 해결에 지역별 특성에 맞게 추진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지향점을 따르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21세기에는 우리도 여기에 구미, 북미, 아시아, 유럽지역의 6개국의 원주민들이 함께 하는 한강 연세한강에 관한 국제회의를 개최하고 연세, 한강, 건강에 관한 지구환경회의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있는 한강연대를 위한 연구와 정책 동향을 공유하고 협력적인 대책을 위한 국제적 네트워크를 형성하게 될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된다.

인류가 직면하고 있는 한강개발에서 찾아내기 위한 노력으로 연세들이 앞장서고 있지만 한강건강문제 해결에 대한 연세들이 앞장 서는 데에 있는 것이 그들의 실정이다. 연세가 주목하고 있는 한강오염으로 인한 건강피해에 취약계층은 주로 이대연 연세가 겪는 한강건강피해는 주세에게 물려주는 데에 주주할 필요가 있다. 뿐만 아니라 연세는 생명에 대한 책임이 어느 인간과도 다르지 않게 갖고 있고 와노에서 연세인들이 내세우려고 하는 생각이다.

주한 국제회의에서 논의되고 개발되는 생명과학, 한강건강 정책이 연세들의 집안적인 특성으로 한강국제기구에 전파되어 한강오염으로 인한 건강문제 해결에 기여하기를 바라며 이번 계기를 기점으로 하여 지속적으로 연세 한강건강 국제 네트워크를 이룰 것을 기대한다.